

# 조선조 가구에 나타난 의장요소의 분석

—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을 중심으로 —

## An Analysis of Design Elements in Chosun Dynasty Furniture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생활학과

부 교수 박영순

연구조교 전정윤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

Associate Professor : Park, Young Soon

Research Assistant : Chun, Chung Yoon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선행연구의 고찰	V. 결론
I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multi-leveled chest(jang) which was the main furniture of the master bedroom(anbang) in the Chosun Dynasty.

The major findings and conclusions were :

1. The front view of the multi-leveled chest were composed of a protruded top panel(kaepan), drawers, folded doors, sectional panels(chwibyok kan and morum kan) and base stand(madae) in general. Variety in the front view were found more frequently in single level chests than bi- or tir-level chests.

2. The overall dimensions of each type of chest increased with increase in number of levels, but the height of the sectional parts decreased. That is, the overall proportion of the single level chests were 10 : 9, bi-level chests were 5 : 6, and tri-level chests were 2 : 3. The proportion of 1 : 1, 4 : 5, 1 : 3, 1 : 4, 1 : 5 were found often in the sectional parts such as drawers, doors, chwibyok kans and morum kans.

3. In general, the surface treatments were subtle. Carved or inlayed ornamentation were seldom seen, and most chests were finished with clear lacquer to show the

natural wood grain. There were no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surface ornamentation characteristic of any one type of chest.

4. The general patterns of the metal ornaments were spade(yowidu), round, bow, rectangular(yakgua), bat and flower shapes. The multi-level chests were decorated with more metal ornament types compared with the single-level chests.

5. In conclusion, there was more variety in all the design elements in the single level chests compared with the other types of chests. The bi- and tri-level chests were quite stylized in composition, size, proportion, surface treatment, and metal ornamentation.

## I. 서 론

각 나라의 전통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환경, 사회제도, 민족성, 종교, 사상, 생활태도 등에 의해 형성 발전되어 온 것이므로 오늘날과 같은 개방된 국제화 조류 속에서도 그 의미와 가치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문화란 항상 변화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문화의 내용이 한 집단내에서의 전수요소와 새로 가미된 외래요소로 구성되어 있을 때 전수되는 요소를 일컬어 전통문화라고 한다(김원룡, 1976). 따라서 전수되고 있는 전통문화의 원천을 명확히 밝히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일은 이의 계승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의 전통문화 중에서도 미술공예 분야에서는 도자기와 목공예를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중 목공가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60년대말에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해, 현재 학문적 깊이나 가치의 인식이 정립되어가는 추세이다.

선행된 연구들은 한국전통가구가 그 특성을 지니게된 배경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그 종류나 재료, 용도, 형태상의 일반적 특징들을 정리해왔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가구를 종류나 재료의 특성별로 선정하여 지방적 특징이나, 구조적 특성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들도 꾸준히 계속되어오고 있다.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전통가구에는 전통적 생활양식과 민족의 순수한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가구의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의장요소에는 생활속에서 나타난 순수한 미의식이 배어있기 때문에

순수미술의 탐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전통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전통가구 의장에 나타난 미적특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곽계정, 1969; 백성도, 1976; 배연희, 1982; 허영란, 1987)들도 다수 있는데, 이들은 한국가구가 다른문화권과 크게 다른점으로, 목리를 문양화해서 자연을 순수하게 즐기고자 했다는 점과 가구전면을 작은 면들로 분할하여 아름다운 목리의 양적 제약을 장식적으로 해결했다는 점, 그리고 안방가구와 사랑방가구의 이미지를 중시하여 기품있는 선비정신과 여성적 특수성이 의장적으로 표현된 점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전통가구의 의장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자면, 목리문이나 면분할, 그리고 금구장식 등이 각 가구의 종류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다양성의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상세하게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장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혼례가구의 중심이며, 여성공간의 대표적 가구로서, 의류수납의 중심적 기능을 해 온 가구이다. 선행된 전통가구의 종류별 연구를 살펴보면, 장에 관한 것이 몇편 있지만(이풍미, 1975; 배연희, 1982; 허영란, 1987), 그 의장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깊이있게 다룬 연구는 아직 없다.

각 전통가구의 종류별 의장적 특성을 깊이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종류의 가구를 여러개 동일한 수법으로 도면화하여 그 형태나 구성 및 비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종류의 통일된 특성과 각각의 특수성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도면화작업은 상당한 작업과 시간이 요구되므로 선행연구(곽계정, 1969; 이풍미, 1975; 배만실, 1975; 김광열, 1988)에서는 주로 부분적인 그림이나 사진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사진은 촬영조건이나 시점을 일관성있

게 유지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의장분석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제한점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방의 대표적 가구인 장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의장적 특성을 도면화하고, 의장요소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그 내용을 종합하여 공통된 일반적 특성과 특수성 및 다양성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의 의장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자료로 선정된 가구를 정확하게 도면화한다.
- 2) 조사된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의 전면구성과 크기 및 비례와 표면장식 및 금구장식등의 의장적 특성을 파악한다.
- 3) 조사된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의 의장적 특성을 각장의 종류별로 비교 분석한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한국전통가구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 이후 이분야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어 오면서 그 주제나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선행된 연구들을 그 주제나 범위에 따라 분류해보면, 전통가구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연구, 가구를 그 특성이나 종류별로 구분하여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 가구 의장에 관한 연구, 전통가구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그리고 타문화와의 비교나 미적 표현에 관한 기타연구등 크게 다섯분야로 구분된다.

이 중 본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의장분석에 관련된 연구를 정리해보면, 그내용이 구조 및 짜임, 전면구성, 크기 및 비례, 표면장식, 금구장식, 종합분석등으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의장에 관한 연구에는 금구장식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아 한국전통가구의 의장의 대표적 특성임을 짐작케 한다.

곽계정(1969)은 전통가구의 의장요소중 금구장식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민속관과 개인소장의 가구 79점을 대상으로 하여 금구장식을 그 용도에 따라 경첩, 들쇠, 앞바탕, 고리, 자물쇠, 귀장식, 광두

정, 이마받이 개판 귀장식, 거털장식, 뿔침대 등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문양 및 종류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금구장식의 형태와 제작기법을 정리한 점에 있어 전통가구 의장연구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금구장식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었는데, 백성도(1976)는 영남지방을 중심으로한 조선조말기 가구류의 금속장식문양에 관한 연구에서 그 종류를 문자문, 동물문, 식물문, 기타로 나누고, 용도별로는 벽선장식, 뇌금, 풍파쇠, 경첩, 파수, 고리받침, 통기, 귀쌈, 감잡이, 정자, 강연, 케웃동장식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이성례(1979)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구장식의 크기와 형태 및 문양을 조사하고 가구전면에서 장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한편, 신민(1980)은 조선조가구에 부착된 금구장식중 자물쇠장식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 고유형 자물쇠의 실례를 들어 그 종류와 크기, 문양 및 재료를 밝히고 현대자물쇠와 비교하였다. 또한 배연희(1982)는 또한 조선조 여성용가구에 관한 연구에서 금속장식의 특성을 밝혔는데, 들쇠장식에는 반달형과 활형, 경첩은 약과형, 앞바탕는 등근형, 그리고 고리장식은 네모난 방환형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보고했다. 허영란(1987)도 조선시대 내실가구의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반달들쇠, 등근앞바탕, 약과형경첩, 운문귀장식, 약과형감잡이, 국화광두정, 환고리, ㄷ자형 자물쇠가 빈번히 사용되었음을 밝혀 배연희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이혜주(1988)도 금구장식의 역사적배경과 특질을 고찰하였는데 금구장식의 분류나 명칭은 백성도(1976)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전통가구의 의장요소 중 구조와 짜임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전통가구의 특징이 구조와 짜임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권봉희(1985)는 전통가구의 구조를 천판, 기둥, 판재, 마대, 문짝, 서랍으로 구분하여 그 형태의 다양성과 짜임의 종류를 조사하였는데, 특히 기둥의 표면과 모서리를 처리한 쇠시리의 종류를 실사모, 골미모, 삼각모, 반원모, 실오리모, 평모등으로 분류하였다. 한편,김광열(1988)은 가구의 구조적 특성중 풍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즉, 풍혈의 짜임과 위치에 따라서 기본형, 마대형, 보아지형, 죽절형, 판각형 등으로 나누고, 이를 가구의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단층장은 기본형풍혈이 가장 많고 다음은 보아지형, 마대형의 순이었고, 층장은 마대형이 가장 많고, 다음이 기본형, 평마대형 순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한국전통가구의 의장적특성을 비례에서 찾아낸 연구들도 있다. 배만실(1975)은 전통가구 43점에 대해서 그 구성요소 중 정면윤곽, 측면윤곽, 평면, 몸체, 문짝, 머릿간, 쥐벽간, 서랍등에 있어 각면의 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비례의 사용빈도를 조사하였는데, 가장 빈번히 사용된 비례치수는 1:1.62로 황금비에 가깝고, 다음으로는  $\sqrt{2}$ ,  $\sqrt{3}$ 의 자승근비와 4:5, 5:6, 1:1.1등의 순으로 고건축의 초기에 나타나는 비례와 유사함을 밝혔다.

이풍미(1975)는 장·농에 대한 기능과 형태미의 연구에서 장·농 120점을 실측 분석하였는데, 이불장의 높이는 370~500mm, 머릿장은 835mm, 이층장은 1262mm, 삼층장은 1663mm의 평균치를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전면 윤곽비의 평균은 높이를 1로 보았을 때 단층장은 1:1.19, 이층장은 1:0.86, 삼층장은 1:0.68임을 밝혔다. 또한, 배연희(1982)는 그의 연구에서 112점 가구의 규격을 분석하였는데, 가로의 평균은 845mm, 세로는 463mm, 높이는 1170mm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한 평면비는 1:1.12, 전면비는 1:1.32, 측면비는 1:2.55의 평균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례를 각기 규모가 다른 가구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지는 않았다. 한편, 오구환(1984)은 사랑방가구에 나타난 비례의 연구에서 정면, 문짝, 서랍, 층, 몸체등의 가로:세로의 비를 구해 각가구별로 나타나는 비례의 빈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모든형의 기본이 되는 정방형과 정방형을 반복시킨  $\sqrt{4}$ 의 비례임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한국 전통가구의장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각각의 의장요소들이 지닌 특성을 전가구에서 파악하려했을 뿐, 그 특성이 각 가구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가를 비교 분석하지는 않았다. 또한 가구 전면의 구성은 의장적 특성을 지배하는 중요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면구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가구의 의장특성을 각 요소별로 전가구에서 밝혀내는 것도 그 의미가 크지만, 각 가구의 종류별

의장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전통가구 중 안방에서 사용되었던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의 의장적 특성을 분석 파악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국한한다. 또한 한국전통가구는 현존하는 유물이 조선조 말기의 것이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장의 자료는 조선조 말기의 것으로 국한한다. 그러나 한국의 민족성은 토착성이 강하고 보수적이어서 새로운 것보다는 오래된 것을 소중히 여겼으므로 가구의 발전과정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조선조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조 말기의 가구를 분석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장의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진품으로서의 신뢰도가 높고 자료화가 용이한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방법은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선행된 연구(백성도, 1976; 배연희, 1982; 허영란, 1987; 이혜주, 1988)에서도 일관된 체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적 사료인 유물을 대상으로 하여 역사적 연구방법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 가구의 선정

본연구에서는 유물의 진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박물관 선정에 있어서는 21개 대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을 방문하여 자료수집의 가능성을 타진한 후 조사가 가능한 8개박물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박물관에 소장된 안방에서 사용된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은 모두 자료로 수집하였으며, 이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된 박물관 및 가구의 수

박 물 관	가구 종류별 갯수			계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	
온양민속 박물관	3	3	5	11
경희대학교 박물관	5	2	1	8
고려대학교 박물관	1	1	5	7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1	.	.	1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	1	2	3
연세대학교 박물관	.	.	1	1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1	1	.	2
개 인 소 장	1	1	.	2
자 료 총 계	12	9	14	35

2. 조사일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1990년 7월 26일부터 9월 21일 사이에 행해졌다.

1차 예비조사는 7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21개 대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을 방문하여 자료수집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조사 가능한 8개 박물관을 선정하는 과정이었다.

2차 예비조사는 8월 7일부터 13일 사이에 행해졌으며, 온양민속박물관과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측, 스케치, 사진촬영을 실시해봄으로써 자료수집에 필요한 시간, 도구, 인원등을 점검하였다.

본조사는 8월 14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표 1〉에 열거된 8개소에서 행해졌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상세한 스케치와 실측 및 정면, 측면, 투사면등의 사진촬영을 이용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실측, 스케치, 촬영된 자료는 1/5Scale로 축소하여 도면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재현이 어려운 목리문, 전면적인 조각문양, 나전문양 등은 도면에서 생략하였다.

도면화된 가구의 의장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헌 및 선행연구(곽계정, 1969; 배만실, 1975; 박영규, 1982)에서 전통가구 의장의 주요요인으로 거론되었던 크기 및 비례, 전면구성, 표면장식, 금구장

식등을 중심으로한 분석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4.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전통가구에 관한 용어와 명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의미와 범위를 국한한다.

1) 의장 : 의장이란 공예품에 외관상 미감을 주기 위하여 그 모양과 빛깔 또는 그 조화를 더하는 특수한 고안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전면구성, 크기 및 비례, 표면장식, 금구장식에 나타난 특성으로 그 뜻을 국한한다.

2) 표면장식 : 가구의 전면에 보이는 판재나 골재에 조각, 상감, 칠, 덧붙임등으로 장식한 내용을 의미하며 금구장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개판 : 가구의 상부를 덮는 천판 중에서 몸체보다 그 크기가 커서 양옆과 앞으로 약간 튀어나온 것을 의미한다.

4) 골재기둥 : 장을 구성하고 있는 골재 중, 쇠목과 동자를 제외한 외곽의 두꺼운 기둥을 의미한다.

5) 쇠시리 : 골재기둥, 쇠목, 동자등 골재의 모서리처리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등근모, 배미리모, 골미리모, 평모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구분하였다.



6) 몸체 : 장에서 개판과 다리부분을 제외한 몸통

전체를 이루는 부분을 말한다.

7) 다리 : 몸체를 받치는 부분을 말한다.

8) 골재 : 가구의 뼈대를 이루는 모든 기둥과 쇠목을 통칭한다.

9) 기둥 : 가구의 몸체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수직적인 골재를 말한다.

10) 쇠목 : 기둥과 기둥을 가로지른 수평적인 골재를 말한다.

11) 동자 : 쇠목과 쇠목 사이에서 판재를 이어주는 짧은 기둥을 말하며, 가로로 간 경우는 가로동자라 한다.

12) 머름간 : 동자에 의해 분할된 면을 말한다.

13) 쥐벽간 : 가로동자에 의해 분할된 면을 말한다.

14) 문변자 : 문짝의 뼈대를 이루는 울거미를 말한다.

15) 복판 : 문변자 중앙에 끼워진 판재를 말한다.

16) 굽통 : 다리부분에서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풍혈 : 다리와 다리 사이에 통기를 위해 비워 놓은 부분을 말한다.

18) 금구장식 문양의 명칭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국한한다.



제비추리형:

ㄷ자형:

국수형:

버선형:

운형:

활형:

칠보형:

석류형:

연봉형:

원판형:

천도형:

네모형: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 단층장의 의장분석

조사된 단층장은 12개였으며 이들이 지닌 의장적 특성분석을 위해 그 입면도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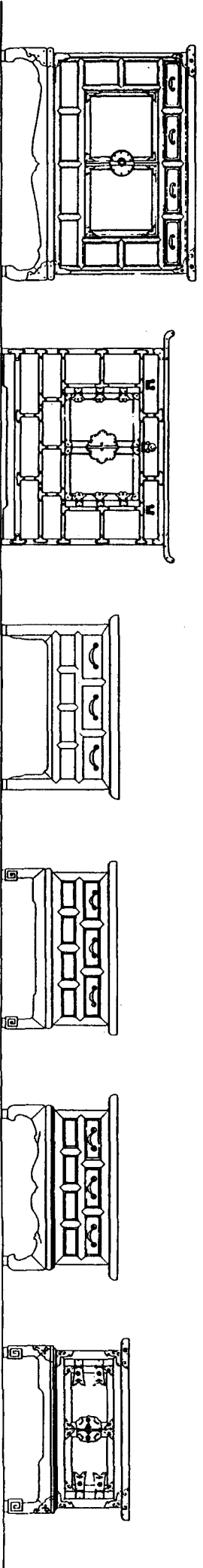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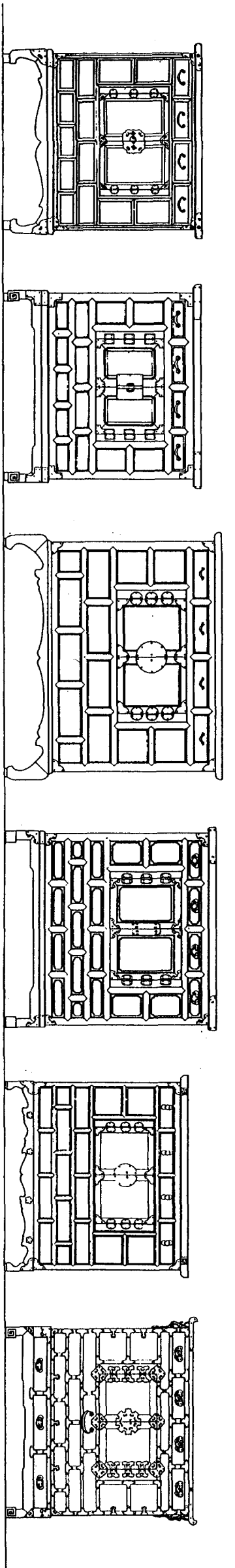
##### 1) 전면구성

전면구성의 분석항목은 천판, 문, 문양측, 문상단, 문하단, 다리로 구분하였다. 조사된 단층장의 전면구성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사된 단층장의 천판은 모두 개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은 대부분 한쌍의 여닫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문양측에는 대부분 쥐벽간이 두단씩 있는데 D9~D12는 쥐벽간이 구성되어있지 않다.

문상단은 대부분 서랍으로 구성되어있고 문하단에는 대부분 머름간이 1단~3단 있는데 단층장에 있어 문하단 머름간의 단이나 칸의 수는 그다지 일률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리는 분리형마대가 일반적이고 판재나 골재에서 이어진 다리는 다소 변칙적임을 알 수 있다.

이로서 D1~D8 단층장의 전면구성은 비교적 통일된 형식을 보이나 문하단 머름간에서 다양한 구성적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D9~D12의 단



<그림 1> 조시대상 단층정의 입면도

〈표 2〉 단층장의 전면구성 분석표

번호 \ 구성항목	천 판	문	문양측 (취벽간)	문상단	문하단 (머름간)	다 리
D1	개 판	두짝여닫이문 1쌍	2단	서랍 4개	4칸 5칸	마 대
D2	개 판	두짝여닫이문 1쌍	2단	서랍 4개	4칸 5칸	마 대
D3	개 판	두짝여닫이문 1쌍	2단	서랍 4개	4칸 5칸	마 대
D4	개 판	두짝여닫이문 1쌍	2단	서랍 4개	4칸 5칸 4칸	마 대
D5	개 판	두짝여닫이문 1쌍	2단	서랍 4개	4칸 5칸 4칸	마 대
D6	개 판	두짝여닫이문 1쌍	2단	서랍 4개 머름간3칸	3칸 4칸 5칸	마 대 (서랍 3개)
D7	개 판	두짝여닫이문 1쌍	2단	서랍 4개	4칸	마 대
D8	두루마리 개 판	두짝여닫이문 1쌍	2단	서랍 3개	4칸 3칸	측판에서 이어진 다리
D9	개 판	없 음	없 음	서랍 3개	4칸	골재기등에서 이어진 다리
D10	개 판	없 음	없 음	서랍 3개	4칸	마 대
D11	개 판	없 음	없 음	서랍 3개	4칸	마 대
D12	개 판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마 대

층장은 그 구성이나 규모로 보아 머리말이나 옷방에 놓고 이불을 쌓아 올리던 이불장으로 분류되는데, D9~D11은 일반적구성이며 D12는 다소 변칙적임을 알 수 있다.

2) 크기 및 비례

조사된 단층장의 크기 및 비례는 〈표 3〉과 같다. 우선 전체크기를보면, D1~D8은 규모가 유사하나 D9~D12는 규모가 작은 이불장이므로 크기나 비례의 분석에 있어서는 단층장과 이불장, 두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① D1~D8 단층장

단층장에 있어 전체크기 차이의 폭은 비교적 큰

편으로 그 규모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층장의 용도가 다양하여 필요에 따라 크기를 자유롭게 변화시켜 제작했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전체크기의 평균을 가지고 가로 : 세로 : 높이의 비를 산출해보면 1 : 0.45 : 0.90으로, 전면에서 보면 가로가 약간 긴 정방형에 가까운 안정된 비를 보인다.

개판에 사용된 골재의 두께는 최소 18mm(D6), 최대 38mm(D5), 평균 28mm이다. 개판의 두께와 너비 또는 높이와의 관계로 보면, 그다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문의 크기에 있어서는 가로, 세로, 모두 비교적 큰 다양성을 보인다. 평균은 가로 256mm, 세로, 320mm이며 그 비는 1 : 1.25(4 : 5)로 세로가 다소 긴 사각형이다. 문양옆의 취벽간도 차이의 폭은 비교적 크



<표 3> 단층장의 크기 및 비례 분석표

	전체크기 (가로×세로×높이)	천 판 (가로×두께)	두꺼닥단이문 (가로×세로)	문양축(취벽간) (가로×세로)	문상단(서랍,머름간*) (가로×세로)	문하단(머름간**) (가로×세로)	다 리 (가로×세로)	끝재기둥/ 동자
D1	크기(mm) 970×440×978 비례 1:0.45:1.01	970×37 (개판) 1:0.04	237×325 1:1.37	110×66(4개) 1:1.46	178×66(4개) 1:0.37	180×70(4칸) 1:0.39 140×60(5칸) 1:0.43	925×250(마대) 1:0.27	35/25 1:0.71
D2	크기(mm) 1010×434×972 비례 1:0.43:1.96	1010×36 (개판) 1:0.04	235×330 1:1.??	115×150(2칸) 1:1.30	182×62(4개) 1:0.34	180×67(4칸) 1:0.37 138×62(5칸) 1:0.46	950×220(마대) 1:0.46	40/35 1:0.85
D3	크기(mm) 1225×480×1065 비례 1:0.39:0.87	1225×25 (개판) 1:0.02	283×340 1:1.20	168×155 1:0.92	240×77(4개) 1:0.32	240×114(4칸) 1:0.48	1213×235(마대) 1:0.19	42/30 1:0.71
D4	크기(mm) 1080×425×1046 비례 1:0.41:0.96	1080×37 (개판) 1:0.03	252×342 1:1.36	122×162(2칸) 1:1.3	192×65(4개) 1:0.34	192×65(4칸) 1:0.34	980×200(마대) 1:0.20	35/33 1:0.94
D5	크기(mm) 1007×440×900 비례 1:0.44:0.89	1007×38 (개판) 1:0.04	242×290 1:1.21	140×140 1:1	195×60(4개) 1:0.31	195×60(4칸) 1:0.34	945×143(마대) 1:0.15	30/30 1:1
D6	크기(mm) 1007×550×955 비례 1:0.54:0.94	1020×18(두루 1:0.02 마라)	235×285 1:1.21	135×130 1:0.96	205×60(4개) 1:0.29 230×40(3칸) 1:0.18	280×60(3칸) 1:0.21 205×60(4칸) 1:0.29	945×220(마대) 1:0.23 280×60(서랍) 1:0.21	25/20 1:0.80
D7	크기(mm) 1025×502×840 비례 1:0.49:0.82	1025×35 9개판) 1:0.03	340×320 1:0.94	104×145(4칸) 1:1.39	196×67(4개) 1:0.34	198×70(4칸) 1:0.35	990×230(마대) 1:0.23	30/25 1:0.83
D8	크기(mm) 992×457×747 비례	993×19(두루마리) 1:0.02	230×320 1:1.39	155×124 1:0.80	253×65(3개) 1:0.26	253×82(3칸) 1:0.32 187×82(4칸) 1:0.44	840×55(측판) 1:0.07	24/24 1:1
평균	크기(mm) 비례 1:0.45:0.90	1041×31 1:0.03	257×319 1:1.25	131×146 1:1.11	242×53(3칸) 1:0.22 198×65(4개) 1:0.33	267×71(3칸) 1:0.27 197×74(4칸) 1:0.37 139×61(5칸) 1:0.44	993×214(마대) 1:0.21 840×55(측판) 1:0.07	33/28 1:0.86
D9	크기(mm) 비례 1:0.58:0.64	792×36 (개판) 1:0.05	없음	없음	183×82(3개) 1:0.45	130×60(4칸) 1:0.46	709×220(골재) 1:0.31	45/35 1:0.98
D10	크기(mm) 비례 1:0.58:0.65	758×38 (개판) 1:0.05	없음	없음	172×70(3개) 1:0.41	120×60(4칸) 1:0.50	770×220(마대) 1:0.31	35/35 1:1
D11	크기(mm) 비례 1:0.62:0.62	800×33 (개판) 1:0.04	없음	없음	177×65(3개) 1:0.37	124×57(4칸) 1:0.46	710×230(마대) 1:0.32	35/30 1:0.86
D12	크기(mm) 비례 1:0.60:0.69	780×35 (개판) 1:0.05	270×210 1:0.78	없음	없음	없음	720×230(마대) 1:0.32	33/30 1:0.86
평균	크기(mm) 비례 1:0.05	783×466×509 1:0.60:0.65	270×210 1:0.78	없음	177×72 1:0.40	125×59 1:0.47	709×220(골재) 1:0.31 710×223(마대) 1:0.31	38/33 1:0.87

— 최소치 = 최대치 \* 문상단의 서랍은 '개'로, 머름간은 '칸'으로 표시하였음.

\* 머름간의 최소치 최대치는 4칸, 5칸 별로 모두 표시하였음.

지만, 평균치수에 대한 가로 : 세로의 비는 1 : 1.11이다.

문상단에는 3개~4개의 서랍이 있는데 3개의 경우 가로, 세로의 평균치는 242mm와 53mm로 1 : 0.22의 비례를 나타내고, 4개의 경우는 198mm와 65mm로 1 : 0.33의 비례를 나타낸다. 즉, 가로가 줄어드는 대신 세로를 늘여서 서랍이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문하단의 머름간은 칸수의 가감에 따라 너비를 칸수로 등분한 경우도 있고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동자만 엇갈리도록 하기 위해 양끝칸을 작게 조정하여 칸수가 늘어난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너비를 칸수로 등분한 경우의 크기와 비례만을 분석하였다. 우선, 3칸으로 등분된 머름간의 경우를 보면, 가로, 세로의 평균이 267mm와 71mm로 1 : 0.27의 비례를 보이고, 4칸으로 등분된 경우는 197mm와 74mm로 1 : 0.37의 비례를 보이며, 5칸의 경우는 138mm와 88mm로 1 : 0.46의 비를 보인다. 이는 서랍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로가 줄어들수록 세로를 늘림으로서 보기좋은 비례가 형성되도록 조절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다리의 높이는 최소 55mm(D8), 최대 250mm(D1)로 그 차이의 폭이 큰데, 분리형 마대가 아닌 D8을 제외하면, 그 평균치는 214mm이다. 마대너비와 다리높이 간의 비는 1 : 0.21로 5 : 1에 가깝고, 전체높이와 다리높이 간의 비는 1 : 0.23이 된다.

가구의 외곽 구조를 이루는 골재기둥과 전면의 면분할에 나타나는 동자의 두께를 보면, 우선 동자는 최소 20mm(D6), 최대 35mm(D2)로 평균 28mm이고, 골재기둥은 최소 25mm(D6), 최대 42mm(D3)로 평균 33mm를 나타낸다. 이들간의 비를 산출해보면 1 : 0.86이다.

이로써 단층장의 크기는 다양한 편이고, 주요 부위의 평균비례는 문이 1 : 1.25, 쥐벽간은 1 : 11, 서랍은 1 : 0.22~0.33, 머름간은 1 : 0.27~1 : 0.46임을 알 수 있었다.

## ② D9~D12 이불장

먼저 전체크기를 보면, 그 차이의 폭이 적어 거의 일률적인 크기라 할 수 있다. 평균은 가로가 783mm,

세로가 464mm, 높이가 509mm로 그 비는 1 : 0.60 : 0.65로 전면비례는 가로가 긴 장방형으로 되어 있어 위에 이불을 쌓아도 안정감이 있는 비례를 보인다.

개판에 사용된 골재의 두께는 평균 36mm이므로 이불장이 키가 낮고 작은데 비해 두꺼운 골재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불의 무게를 잘 버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문은 D12에서만 보이는데 가로 270mm, 세로 210mm로 그 비는 1 : 0.78이다. 이는 다른 단층장의 문의 비 1 : 1.25와는 달리 가로가 세로보다 긴 장방형으로 문양측에 쥐벽간을 두고 있지 않기때문에 문이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개판 아래 있는 3개의 서랍은 단층장의 서랍보다 세로가 긴 1 : 0.40의 비례를 나타내며, 서랍 아래 4칸으로 구성된 머름간도 단층장의 것보다 세로가 긴 1 : 0.47의 비례를 나타낸다. 이는 서랍과 머름간 사이에 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리는 평균 223mm로 단층장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인데, 마대너비와 높이간의 비는 1 : 0.31을 나타낸다.

골재기둥과 동자 굵기의 평균은 38mm와 33mm로 단층장에 비해 5mm씩 굵어졌는데 이는 천판과 마찬가지로 이불장으로서의 견고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간의 비는 단층장과 유사한 1 : 0.87이다.

이로써 단층장의 전체크기나 부위별 크기는 비교적 다양성의 폭이 큰데 비해 이불장은 동일한 기능을 위해 거의 양식화된 크기가 설정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3) 표면장식

표면장식에 있어서는 전면 판재에 사용된 목재, 목리문의 드러나는 정도, 표면에 사용된 문양의 기법 및 내용, 칠, 쇠시리의 처리, 풍혈의 형태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면 판재에 사용된 목재는 느티나무가 가장 많았으며 그외에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목리문은 먹감나무의 경우만 강하게 두드러져 보였고, 그 외에는 나뭇결이 은은하거나 거의 드러나보이지 않았다.

표면에 사용된 문양은 먹줄로 머름간이나 문변자

〈표 4〉 단층장의 표면장식 분석표

항목 번호	목 재	목리문	문 양 표 현		칠	쇠시리	풍 헐
			기 법	내 용			
D1	느티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	.	옷칠 / 흑칠	배미리모	박쥐형
D2	물푸레나무	거의 드러나 보이지 않음	먹 줄	사 각 형	옷 칠	등 근 모	직선형
D3	떡감나무	강하게 드러나 보임	.	.	옷 칠	등 근 모	박쥐형
D4	은행나무	복판전면에 조각	양 각	심 장 생	옷 칠	실오리모	직선형
D5	피 나 무	복판전면에 조각	음 각	봉황, 국화, 포도, 연꽃, 소나무	옷 칠	실오리모	박쥐형
D6	화류나무	거의 드러나 보이지 않음	.	.	옷 칠	평 모	직선형
D7	대 나 무	치장재로 마감	죽 장	빗완자문	주칠 / 흑칠	골미리모	박쥐형
D8	떡감나무	강하게 드러나 보임	.	.	옷 칠	등 근 모	직선형
D9	느티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먹 줄	사 각 형	옷 칠	등 근 모	직선형
D10	느티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먹 줄	사 각 형	옷 칠	등 근 모	직선형
D11	느티나무	거의 드러나 보이지 않음	먹 줄	사 각 형	옷 칠	등 근 모	박쥐형
D12	느티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	.	옷 칠	등 근 모	직선형

에 사각형을 두른 경우가 있고, 그외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조각해 장식한 경우, 그리고 대나무쪽으로 빗완자문양을 만들어 붙여 표면을 장식한 경우가 있고, 그외에는 표면에 별다른 장식없이 목리문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장식을 대신하였다.

칠은 대부분 투명한 옷칠로 마감하여 목리가 잘 드러나도록 하였고, 쇠시리는 등근모로 처리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풍혈은 박쥐형이 5경우, 직선형이 7경우로 직선형이 더 많았다.

이로써 단층장의 주된 표면장식은 나뭇결이며 이를 자연스럽게 옷칠로 마감한 경우가 많지만 문복판에 정교한 조각을 하거나 흑칠, 주칠, 죽장 등으로 표면장식 효과를 다양하게 나타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금구장식

금구장식은 감잡이, 고리 및 들쇠, 앞바탕, 경첩, 자물쇠, 광두정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금구장식의 재료는 대부분 주석이며 D4, D8만이 백동으로 되어 있다.

먼저, 감잡이의 사용현황을 보면, 단층장은 키가 낮은편이기 때문에 허리대감잡이는 D6에서만 나타날 뿐, 나머지 단층장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전면을 장식하는 새발장식 감잡이도 D6, D8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불장의 경우는 D12를 제외하고는 감잡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감잡이는 비교적 그 형태가 통일성있게 사용되어 D2는 약과형, D3는 버선형, D4는 화형, D7, D12는 여의두형으로 통일되어있다.

표 97. 단행영역 MT영역 분석표

행목 번호	재료	감 잡 이										경 찰 (갯 수)	자 물 서 (갯 수)	금 구 장 식 의 총 갯 수			
		거 멸 감 잡 이					장 식 감 잡 이								고 리 및 들 서		
		개 판 귀 감 잡 이 (갯 수)	몸 채 귀 감 잡 이 (갯 수)	허 리 대 감 잡 이 (갯 수)	곱 통 감 잡 이 (갯 수)	문 귀 장 식 감 잡 이 (갯 수)	새 받 장 식 감 잡 이	서 램 (갯 수)	문 (갯 수)	몸 판 (갯 수)	들 서 받 침 (갯 수)				앞 바 탕 (갯 수)		
D1	주 석	투 각 완 자 청 2	투 각 완 자 청 4	.	여 의 두 형 2	여 의 두 형 8	활 쟁 들 서 4	등 근 형 고 리 1	.	투 각 완 자 문 여 의 두 형 1	등 근 형 6	.	28				
D2	주 석	약 과 형 2	약 과 형 4	.	약 과 형 2	약 과 형 8	활 쟁 들 서 4	네 모 형 고 리 1	.	약 과 형 1	약 과 형 6	.	28				
D3	주 석	.	버 신 형 4	.	.	버 신 형 24	박 쥐 형 들 서 4	.	.	등 근 형 1	등 근 형 6	.	23				
D4	백 동	화 형 2	화 형 4	.	화 형 2	화 형 8	활 쟁 들 서 4	.	박 쥐 형 4	약 과 형 1	약 과 형 6	.	31				
D5	주 석	투 각 완 자 문 약 과 형 2	화 형 4	.	화 형 2	화 형 8	친 도 형 고 리 4	.	.	등 근 형 1	등 근 형 6	.	27				
D6	주 석	두 투 마 리 형 2	방 두 형 2	식 류 형 4	식 류 형 2 화 형 14	화 형 14	활 쟁 들 서 4	.	박 쥐 형 7	보 상 화 형 1	보 상 화 형 6	.	98				
D7	주 석	투 각 칠 보 문 여 의 두 형 2	투 각 칠 보 문 여 의 두 형 4	.	여 의 두 형 2	자 화 형 8	박 쥐 형 들 서 4	등 근 형 고 리 1	.	등 근 형 1	들 쟁 귀 4	.	26				
D8	백 동	두 투 마 리 형 2	약 과 형 2	.	.	화 형 8	망 두 형 30	다 자 형 들 서 3	.	보 상 화 형 1	보 상 화 형 6	은 쟁 자 물 서 1	53				
D9	주 석	.	.	.	.	.	활 쟁 들 서 3	.	.	.	.	.	3				
D10	주 석	.	.	.	.	.	활 쟁 들 서 3	.	.	.	.	.	3				
D11	주 석	.	.	.	.	.	활 쟁 들 서 3	.	.	.	.	.	3				
D12	주 석	투 각 완 자 문 여 의 두 형 2	투 각 칠 보 문 여 의 두 형 4	.	.	여 의 두 형 8	.	화 형 고 리 1	.	여 의 두 형 1	투 각 완 자 문 체 비 추 리 형 4	.	20				
소 유 가 구 / 사 해 수	8 / 12	9 / 12	1 / 12	6 / 12	9 / 12	9 / 12	2 / 12	11 / 12	4 / 12	1 / 12	9 / 12	9 / 12	1 / 12				
백 분 율	67%	75%	8.3%	50%	75%	75%	17%	92%	33%	33%	75%	75%	8.3%				
평 균 갯 수	2	4	4	2	9	9	41	4	6	7	7	7	1	29			

고리 및 들쇠의 사용을 보면, 서랍에는 D5의 천도형 고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들쇠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 형태는 활형이 가장 많다. 문에는 고리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D1, D7에서 둥근형 고리, D2에서 네모형 고리, D12에서 화형고리가 사용되고 있다. 몸판에는 D6의 경우에만 박쥐형 들쇠가 사용되었을 뿐, 나머지는 몸판에 들쇠를 달지 않았다. 들쇠받침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는데, D4, D6에서만 서랍의 들쇠 밑에 박쥐형 받침이 사용되었다.

앞바탕과 경첩은 문이 없는 D9, D10, D11을 제외한 모든 단층장에 사용되었는데, 그 형태는 감잡이에서와 같이 비교적 통일된 양상을 보였다.

자물쇠는 D8에서만 은혈자물쇠가 보였을 뿐,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광두정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단층장에 금구장식 총갯수의 평균은 29개로 D6의 98개는 예외적으로 많은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단층장에 사용되는 금구장식의 종류는 천판, 몸체, 굽통감잡이, 문기구장식, 앞바탕, 경첩, 서랍고리가 일반적이고, 허리대감잡이, 몸판들쇠, 광두정 등은 예외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물쇠는 분실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예외적인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금구장식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각 가구내에서는 통일성과 조화감있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조사대상 이층장의 의장분석

조사된 이층장은 9개였으며, 이들이 지닌 의장적 특성 분석을 위해, 그 압면도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 1) 전면구성

조사된 이층장의 전면구성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천판은 모두 개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층장에 서와는 달리 두루마리개판은 전혀없다. 또한 모든 이층장의 각층에는 두짝 여닫이문이 한쌍씩 있다.

문양측에는 쥐벽간이 대부분 2단씩 구성되어 있으며, 문상단에는 대부분 4개의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하단에는 4칸으로된 머름간이 1단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아래층 문 최하단에 있는 머름간은 대부분 5칸으로 되어있으며, 다리는 대부분 분리형 마대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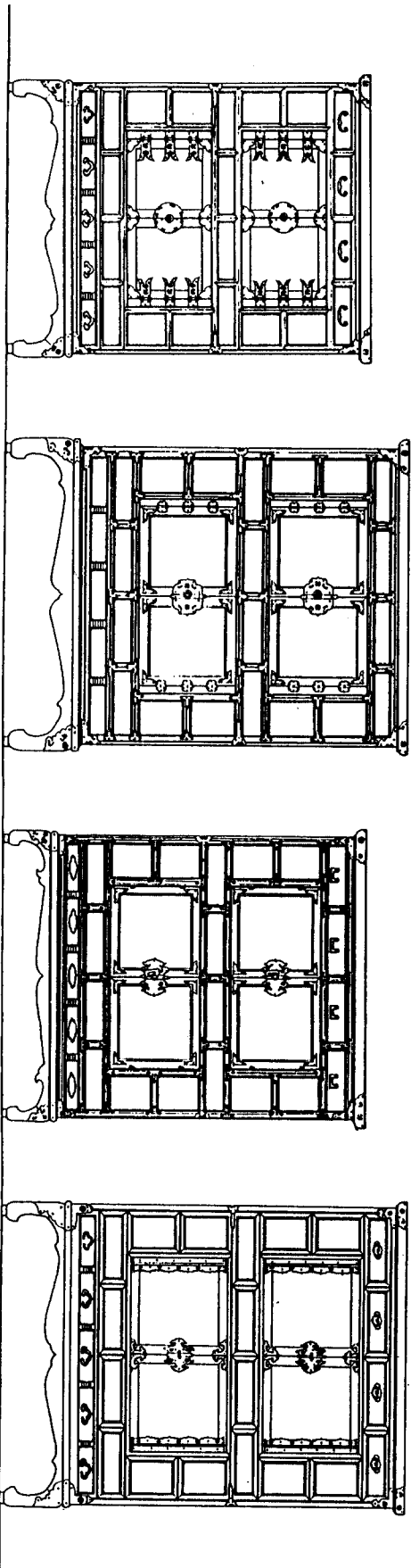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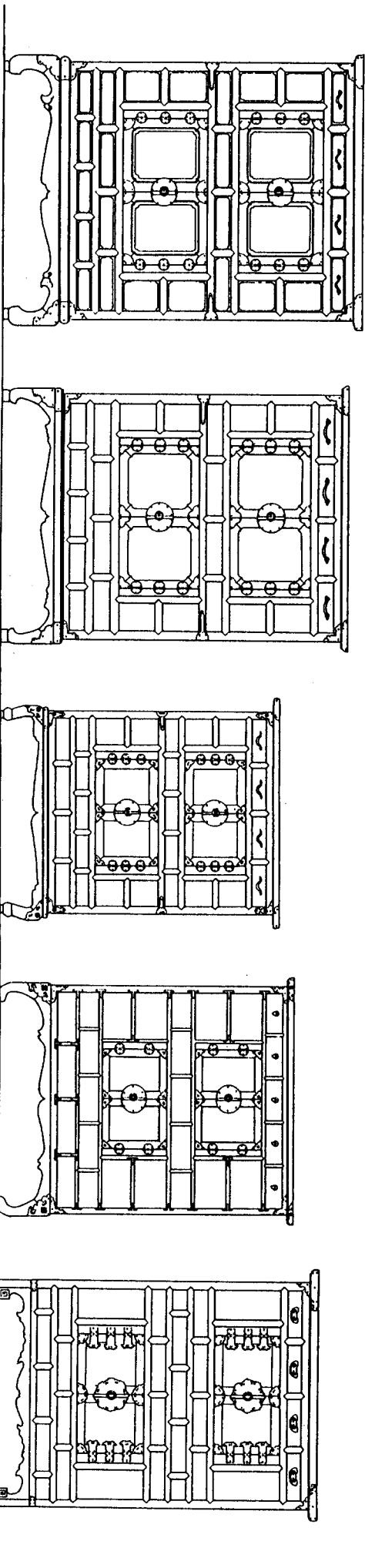
이로써 이층장의 전면구성은 단층장보다 그 형식이 통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판과 각층 1쌍의 두짝 여닫이문, 문상단에 서랍 4개, 문양측에 쥐벽간 2단씩, 문하단에 4칸과 5칸의 머름간, 분리형 마대가 일반적인 전면구성인 것으로 보여진다.

### 2) 크기 및 비례

조사된 이층장에 대한 크기 및 비례의 분석 결과

<표 6> 이층장의 전면구성 분석표

항목 번호	천판	문 (두짝여닫이문)	문양측 (쥐벽간)	문상단	문하단 (머름간)	문최하단 (머름간)	다 리
E1	개판	각층 1쌍	각층2단	서랍 4개	4칸	5칸	마 대
E2	개판	각층 1쌍	각층2단	서랍 4개	4칸	5칸	마 대
E3	개판	각층 1쌍	각층2단	서랍 4개	5칸	4칸	마 대
E4	개판	각층 1쌍	각층2단	서랍 5개	5칸	4칸	마 대
E5	개판	각층 1쌍	각층1단	서랍 4개	1층:4.5칸 2층:4칸	없음	측판에서 이어진 다리
E6	개판	각층 1쌍	각층2단	서랍 4개	4칸	5칸	마 대
E7	개판	각층 1쌍	각층2단	머름간4칸	4칸	5칸	마 대
E8	개판	각층 1쌍	각층2단	서랍 4개	4칸	5칸	마 대
E9	개판	각층 1쌍	각층2단	머름간4칸	4칸	5칸	마 대



〈그림 2〉 조선대왕 이충정왕의 입면도

〈표 7〉 이층장의 크기 및 비례 분석표

항목 크기 및 비례	전체크기 (가로×세로×높이)	친관 (가로×두께)	두꺼비담이문 (가로×세로)	문양축(취벽간) (가로×세로)	문상단(서랍,머름간*) (가로×세로)	문하단(머름간**) (가로×세로)	다리 (가로×세로)	끝재기둥/ 동자
E1	크기 (mm)	1118×553×1498	118×37 (개판)	300×340	123×160(2단)	220×60(4칸)	1100×250(마대)	35/30
	비례	1:0.49:1.34	1:0.03	1:1.13	1:0.27	1:0.27 1:0.46	1:0.23	1:0.86
E2	크기 (mm)	1100×509×1437	1109×38 (개판)	300×326	112×152(2단)	213×63(4칸)	1065×250(마대)	35/30
	비례	1:0.46:1.31	1:0.03	1:1.09	1:0.30	1:0.32 1:0.40	1:0.23	1:0.86
E3	크기 (mm)	974×436×1158	974×28 (개판)	265×230	112×118(23)	180×58(5칸)	910×200(마대)	30/30
	비례	1:0.45:1.19	1:0.03	1:0.87	1:1.05	1:0.32 1:0.40	1:0.22	1:1
E4	크기 (mm)	1030×423×1225	1030×25 (개판)	262×278	195×132(2단)	180×83(5칸)	970×210(마대)	25/25
	비례	1:0.41:1.19	1:0.02	1:1.06	1:0.68	1:0.46 1:0.30	1:0.22	1:1
E5	크기 (mm)	1045×422×1335	1045×35 (개판)	250×280	132×280(1단)	200×63(4칸)	940×130(측판)	32/28
	비례	1:0.40:1.28	1:0.03	1:1.12	1:2.12	1:0.32	1:0.14	1:0.88
E6	크기 (mm)	1020×500×1320	1020×35 (개판)	284×305	137×110(2단)	200×57(4칸)	985×240(마대)	30/25
	비례	1:0.49:1.29	1:0.03	1:1.07	1:0.80	1:0.29 1:0.36	1:0.24	1:0.83
E7	크기 (mm)	1132×590×1470	1132×39 (개판)	320×357	125×165(4칸)	230×60(4칸)	1110×220(마대)	35/27
	비례	1:0.52:1.30	1:0.03	1:1.12	1:1.32	1:0.26 1:0.33	1:0.20	1:0.77
E8	크기 (mm)	1085×533×1320	1085×39 (개판)	330×325	118×150(2단)	220×65(4칸)	1050×200(마대)	30/30
	비례	1:0.49:1.22	1:0.04	1:0.99	1:1.27	1:0.30 1:0.29	1:0.19	1:1
E9	크기 (mm)	1115×550×1480	1115×37 (개판)	344×350	160×118(2단)	220×75(4칸)	1080×250(마대)	25/25
	비례	1:0.49:1.33	1:0.03	1:1.02	1:0.74	1:0.34 1:0.33	1:0.23	1:1
평균	크기 (mm)	1070×502×1359	1070×35	295×310	139×138(2단)\ 1:0.99	215×64(4칸)	1034×228(마대)	31/28
	비례	1:0.47:1.27	1:0.03	1:1.05	1:0.41 1:0.41	1:0.30 1:0.37	1:0.22 1:0.14	1:0.90

—최소치 = 최대치 \* 문상단의 서랍은 '개'로, 머름간은 '칸'으로 표시하였음.

\* 머름간의 최소치 최대치는 4칸, 5칸 별로 모두 표시하였음.

는 <표 7>과 같다.

우선, 전체크기를 보면, 가로는 평균 1070mm이며, 세로는 평균 502mm, 그리고 높이는 평균 1359mm로 차이의 폭이 단층장보다는 작지만 크기가 다양한 편이다. 이들 가로, 세로, 높이의 비를 산출해보면 1 : 0.47 : 1.27로 전면에서 보면 세로가 약간 긴 4 : 5에 가까운 비례를 보인다.

개판에 사용된 골재를 보면, 그 두께가 최소 25mm (E4), 최대 39mm(E7, E8), 평균 35mm를 나타낸다. 개판의 너비와 두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단층장에서와는 달리 개판너비가 클수록 두꺼운 골재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단이 문의 크기는 가로보다 세로의 차이가 큰 편이나 평균치의 비를 보면 1 : 1.05로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비례를 보인다.

문양측에 있는 쥐벽간 중 2단으로 된것의 크기를 보면, 가로는 평균 139mm이고, 세로는 평균 138mm로 그 비는 1 : 0.99로 거의 정방형의 비례이다.

문 상단에 있는 서랍이나 머름간 중 4칸으로 된 경우는 가로 211mm, 세로 63mm의 평균치를 보여 그 비는 1 : 0.30이며, 5칸으로 된 경우는 평균 가로

170mm, 세로 70mm로 그 비는 1 : 0.41이다.

문하단에 있는 머름간 중 4칸으로 등분된 경우는 가로 215mm, 세로 64mm의 평균치를 나타내며 그 비는 1 : 0.30으로 문상단의 경우와 같다. 한편, 5칸으로 등분된 경우는 가로 168mm, 세로 62mm의 평균치는 나타내 그 비는 1 : 0.37이므로 문상단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다리는 주로 분리형마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로는 평균 1034mm, 높이는 평균 228mm로 그 비는 1 : 0.22이다. D5의 측판에서 이어진 다리는 가로 940mm, 높이 130mm로 1 : 0.14의 비를 보여 다리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골재기둥은 평균 31mm, 동자는 평균 28mm의 두께를 보여 그 비는 1 : 0.90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이층장은 단층장에 비해 상당히 통일된 구성을 보인 반면, 그 크기와 비례는 단층장과 마찬가지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 3) 표면장식

이층장의 표면장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이층장의 표면장식 분석표

항목 번호	목재	목리문	문양표현		칠	쇠시리	풍형
			기법	내용			
E1	느티나무	거의 드러나 보이지 않음	먹 줄	사 각 형	옷 칠	삼 각 모	박쥐형
E2	먹감나무	강하게 드러나 보임	.	.	옷 칠	등 근 모	박쥐형
E3	느티나무	강하게 드러나 보임	먹 줄	사 각 형	옷 칠	등 근 모	박쥐형
E4	먹감나무	강하게 드러나 보임	.	.	옷 칠	등 근 모	박쥐형
E5	먹감나무	강하게 드러나 보임	.	.	옷 칠	등 근 모	박쥐형
E6	느티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음 각	여의두문	옷칠 / 흑칠	배미리모	박쥐형
E7	느티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먹 줄	사 각 형	옷 칠	꿀미리모	박쥐형
E8	단풍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음 각	안 상 문	옷칠 / 흑칠	꿀미리모	박쥐형
E9	단풍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음 각	여의두문	옷칠 / 흑칠	꿀미리모	박쥐형



〈표 9〉 이중장의 금구장식 분석표

항목 번호	재료	감 잡 이								틀쇠 받침 (갯수)	앞바탕 (갯 수)	경 침 (갯수)	저물쇠 (갯 수)	금구 장식의 총갯수			
		저 명 감 잡 이				장 식 감 잡 이									고리 및 틀쇠		
		개판귀 감잡이 (갯수)	몸채귀 감잡이 (갯수)	허리대 감잡이 (갯수)	몸통 감잡이 (갯수)	문귀장식 감잡이 (갯수)	새발장식 감잡이 (갯수)	서 램 (갯수)	문 (갯수)						몸판 (갯수)		
E1	주석	망 두 형 2	망 두 형 4	망 두 형 2	운 형 2	등 근 형 16	활형틀쇠 4	등 근 형 2	등 근 형 2	등 근 형 12	등 근 형 2	등 근 형 12	46				
E2	주석	망 두 형 2	망 두 형 4	망 두 형 2	운 형 2	버 선 형 16	활형틀쇠 4	등 근 형 2	등 근 형 2	등 근 형 12	등 근 형 2	등 근 형 12	46				
E3	주석	여의두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4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2	버 선 형 16	활형틀쇠 4	원판형 고리 2	등 근 형 2	등 근 형 12	등 근 형 2	등 근 형 12	46				
E4	주석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4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2	화 형 16	친도형 고리 5	등 근 형 2	등 근 형 2	등 근 형 8	등 근 형 2	등 근 형 8	65				
E5	백동	불로조형 2	운 형 4	운 형 2	망 두 형 2	화 형 16	활형틀쇠 4	등 근 형 2	등 근 형 2	불로조형 12	보상화형 2	불로조형 12	48				
E6	주석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4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2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2	버 선 형 16	바귀형 틀쇠 4	등 근 형 2	등 근 형 2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12	투각팔배문 등 근 형 2	투각완자문 제비추리형 12	46				
E7	주석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4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2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2	거 자 여의두형 42	등 근 형 2	등 근 형 2	등 근 형 2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12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2	악과형 12	84				
E8	주석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4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2	거 자 여의두형 42	등 근 형 2	등 근 형 2	등 근 형 2	등 근 형 2	등 근 형 2	등 근 형 2	86				
E9	주석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4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2	여의두형 8	활형틀쇠 4	등 근 형 2	등 근 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4	수팔련형 2	화형 장경침 4	34				
소유가구 / 사 례 수		9 / 9	9 / 9	7 / 9	9 / 9	3 / 9	8 / 9	9 / 9	9 / 9	0 / 9	9 / 9	9 / 9	1 / 9				
백 분 륙		100%	100%	77%	77%	34%	88%	100%	100%	0	100%	100%	11%				
평균갯수		2	4	2	2	15	4	2	2	0	2	10	2	56			

전면에 사용된 판재는 느티나무가 가장 많고, 다음은 먹감나무, 단풍나무의 순이다. 목리문이 드러나는 정도는 먹감나무가 가장 강하고, 단풍나무는 독특한 물결무늬의 목리가 비교적 잘 드러나보였으며, 느티나무는 곧은결, 무늬결, 뿌리부분에 따라 그 드러나는 정도가 다양하였다.

복판이나 쥐벽간, 머름간등 표면에 사용된 장식문양은 미미하며, 주로 목리문을 자연스럽게 살리는 것으로 장식을 대신하고 있다.

칠은 모두 옷칠로 마감되었으며, 골재기둥과 동자의 쇠시리는 등근모가 가장 많았다. 풍혈에 있어서는 단층장과 달리 전부 박쥐형으로 나타나 이층장 풍혈의 양식적 통일성을 보인다.

#### 4) 금구장식

이층장의 금구장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금구장식의 재료는 E5의 백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석으로 되어있다.

우선 감잡이의 사용을 보면, 새발장식감잡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감잡이가 양식화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새발장식감잡이는 E4, E7, E8의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다.

감잡이에 사용된 문양은 각 가구내에서 비교적 통일성있게 나타나는데, 특히 개판귀, 몸체귀, 허리대, 굽통감잡이 등이 여의두형으로 통일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문귀장식은 다른 귀장식과 다소변화를 보여 등근형, 버선형, 그리고 화형도 사용되고 있다.

다음, 고리 및 들쇠를 보면, 서랍과 문에만 사용되었을뿐, 몸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서랍에는 활형 들쇠가 가장 많고 문에는 등근형고리가 가장 많았다.

들쇠받침은 단층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되는 않았는데, 서랍들쇠 밑에 박쥐형받침(E5)과 여의두형 받침(E9)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앞바탕과 경첩은 통일된 경우와, 서로 다른형을 조화시킨 경우가 있었다.

자물쇠는 E8에서만 ㄷ자형이 나타날뿐 다른 장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광두정도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층장에 사용된 금구장식의 총 갯수는 최소 34개(E9), 최대 86개(E8)로 평균 56개이다.

이로써, 이층장의 금구장식은 새발장식을 제외한 모든 감잡이, 서랍들쇠와 문고리, 앞바탕과 경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형태는 등근형과 여의두형이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3. 조사대상 삼층장의 의장분석

조사된 삼층장은 총 14개였으며 이들이 지닌 의장적 특성 분석을 위해 그 입면도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 1) 전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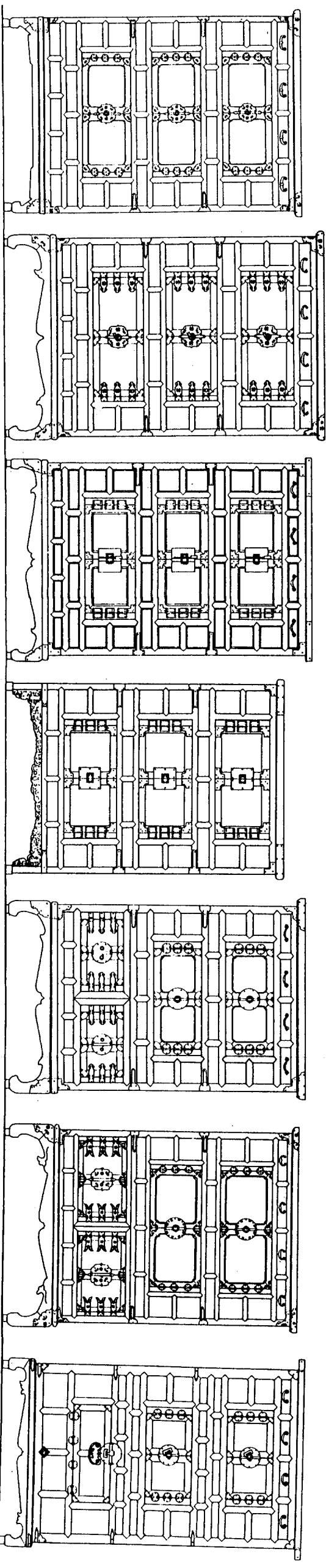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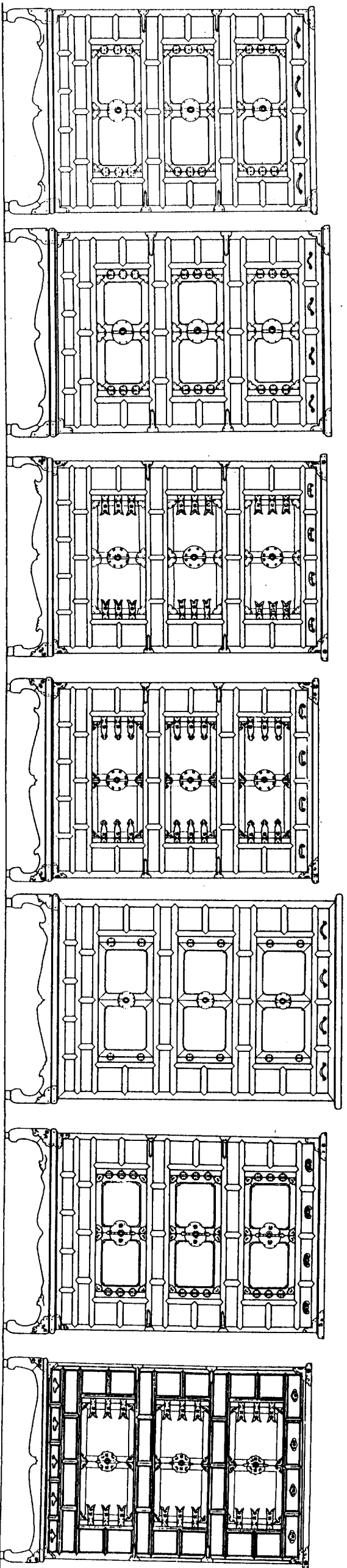
조사된 삼층장의 전면구성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S1~S10의 삼층장 전면구성은 완전히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있다. 즉, 천판은 개판으로 되어있고, 두 짝 여단이문이 각층 1쌍씩, 문양측에 쥐벽간이 각층 2단씩, 문상단에는 서랍 4개, 문하단에는 머름간이 4칸, 아래층 최하단에는 머름간이 5칸, 그리고 마대로 구성되어있다. S11은 이와 달리 문상단에 서랍이 없으며, 아래층 최하단에 머름간도 없고 다리는 분리형마대가 아니라 골재기둥에서 이어진 다리로 되어 있다.

S12와 S13은 원양삼층장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그 양식이 동일한데, 아래층에는 윗층과 달리 두짝여단이문이 두쌍씩 달려있고 쥐벽간과 문최하단의 머름간이 없는 대신 아랫층 문하단의 머름간이 다섯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S14는 반다지장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맨 아래층에 두짝 여단이문 대신 위에서 아래로 열리는 반단이문이 달려 있고 그 양옆으로는 1단의 쥐벽간이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문최하단의 머름간이 맨 아래층에는 없고, 이·삼층에 5칸씩 구성되어있다.

이로써 S1~S10의 구성은 일반적인 삼층장의 구성이고 S11은 약간 변형된 것이며, S12, S13은 일반 삼층장과는 특성을 달리하는 원양장, S14는 반다지장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조사대상 석충장외 입면도

〈표 10〉 삼층장의 전면구성 분석표

구성항목 번호	천 판	문(두짝 여닫이문)	문양측 (취벽간)	문상단 (서랍)	문하단 (머름간)	문취하단 (머름간)	다 리
S1	개 판	각층 1쌍	각층 2단	4개	4칸	5칸	마 대
S2	개 판	각층 1쌍	각층 2단	4개	4칸	5칸	마 대
S3	개 판	각층 1쌍	각층 2단	4개	4칸	5칸	마 대
S4	개 판	각층 1쌍	각층 2단	4개	4칸	5칸	마 대
S5	개 판	각층 1쌍	각층 2단	4개	4칸	5칸	마 대
S6	개 판	각층 1쌍	각층 2단	4개	4칸	5칸	마 대 (서랍3개)
S7	개 판	각층 1쌍	각층 2단	4개	4칸	5칸	마 대
S8	두루마리 개 판	각층 1쌍	각층 2단	4개	4칸	5칸	마 대
S9	개 판	각층 1쌍	각층 2단	4개	4칸	5칸	마 대
S10	개 판	각층 1쌍	각층 2단	4개	4칸	5칸	마 대
S11	개 판	각층 1쌍	각층 2단	없음	4칸	없음	골재에서 이어진 다리
S12	개 판	1층:2쌍 2층:1쌍	1층:없음 2,3층:2단	4개	1층:5칸 2,3층:4칸	없음	마 대
S13	개 판	1층:2쌍 2층:1쌍	1층:없음 2,3층:2단	4개	1층:5칸 2,3층:4칸	없음	마 대
S14	개 판	1층:반닫이문 2,3층:1쌍	1층:1단 2,3층:2단	4개	4칸	1층:없음 2,3층:5칸	마 대

## 2) 크기 및 비례

조사된 삼층장의 크기 및 비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우선 전체크기를 보면 가로는 최소 1050mm, 최대 1130mm, 평균 1085mm이고, 세로는 최소 455mm, 최대 585mm, 평균 533mm이며, 높이는 최소 1475mm, 최대 1760mm, 평균 1632mm이다. 이는 가로폭의 차이보다 높이의 차가 훨씬 큰 것을 나타낸다. 전체크기의 평균비는 1:0.49:1.50으로 전면의 비는 2:3의 비례를 보인다.

다음, 천판의 두께는 평균 35mm로 개판두께와 나비와는 거의 상관이 없어 보인다.

문의 크기에 있어서 가로는 평균 298mm이고, 세로는 평균 271mm로 그 비는 1:0.91이 된다. 이는 단층장이나 이층장과는 달리 가로가 약간 긴 비례이다. 이에 비해 한층에 두쌍의 여닫이문이 있는 원앙장의 경우는 그 비가 1:1.29로 오히려 세로가 긴 비례를 보인다. 문양측에 있는 두단의 취벽간 크기를 보면, 가로는 평균 119mm이고, 세로는 평균 121mm이며, 가로, 세로의 비는 1:1.02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다.

문상단에는 S11을 제외한 모든 삼층장에 4개의 서랍이 있는데 그 크기를 보면 가로는 평균 215mm이고, 세로는 평균 58mm로 그 비는 1:0.27이 된다. 이는 4:1에 가까운 비례이다.

문하단에는 4칸과 5칸의 머름간이 있는데, 4칸의 경우, 그 평균비는 1:0.27로 서랍의 경우와 같고, 5칸의 경우도 그 평균비는 4칸과 유사한 1:0.25이다. 이는 5칸으로 등분한 경우에 가로가 좁아짐에 따라 세로폭도 줄어 유사한 비례가 형성되도록 조절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리형마대로 된 다리를 보면, 가로는 평균 1057mm이고, 높이는 평균 244mm로 그 비는 평균 1:0.23이 된다.

골재기둥의 두께는 평균 36mm이며 동자는 평균

〈표 11〉 심층정의 크기 및 비례 분석표

항목 크기 및 비례	진체크기 (가로×세로 ×높이)	천 판 (가로×두께)	두께여달이문 (가로×세로)	문양측 (취벽간) (가로×세로)	문상단 (서랍, 머름간*) (가로×세로)	문하단 (머름간**) (가로×세로)	다 리 (가로×세로)	끝제기등 / 동자
S1 크기(mm) 비례	1080×530×1640 1:0.49:1.51	1080×33 (개판) 1:0.03	320×270 1:0.84	115×115(2단) 1:1	215×58(4개) 1:0.27	215×58(4칸) 1:0.27 165×46(5칸) 1:0.28	1075×265(마대) 1:0.25	35 / 30 1:0.86
S2 크기(mm) 비례	1105×540×1705 1:0.49:1.54	1105×33 (개판) 1:0.04	300×270 1:1.90	120×120(2단) 1:1	220×60(4개) 1:0.27	220×60(4칸) 1:0.27 170×50(5칸) 1:0.29	1090×275(마대) 1:0.25	38 / 32
S3 크기(mm) 비례	1100×520×1675 1:0.47:1.52	1105×35 (개판) 1:0.03	310×285 1:0.92	115×130(2단) 1:1.13	220×65(4개) 1:0.30	220×65(4칸) 1:0.30 165×60(5칸) 1:0.36	1080×240(마대) 1:0.22	33 / 25 1:0.76
S4 크기(mm) 비례	1075×530×1643 1:0.49:1.53	1075×33 (개판) 1:0.03	305×280 1:0.92	118×123(2단) 1:1.04	218×61(4개) 1:0.28	218×61(4칸) 1:0.28 171×56(5칸) 1:0.33	1065×250(마대) 1:0.23	38 / 27 1:0.71
S5 크기(mm) 비례	1130×585×1760 1:0.52:1.56	1130×35 (개판) 1:0.03	300×270 1:0.90	122×120(2단) 1:0.98	218×60(4개) 1:0.28	218×60(4칸) 1:0.28 170×50(5칸) 1:0.35	1090×280(마대) 1:0.26	40 / 30 1:0.75
S6 크기(mm) 비례	1090×520×1695 1:0.48:1.56	1090×35 (개판) 1:0.03	305×270 1:0.89	120×120(2단) 1:1	220×60(4개) 1:0.27	220×60(4칸) 1:0.27 170×55(5칸) 1:0.32		35 / 30 1:0.86
S7 크기(mm) 비례	1083×540×1630 1:0.50:1.51	1083×33 (개판) 1:0.03	310×285 1:0.92	125×130(2단) 1:1.04	225×65(4개) 1:0.29	225×65(4칸) 1:0.29 175×50(5칸) 1:0.29	1070×230(마대) 1:0.21	35 / 25 1:0.71
S8 크기(mm) 비례	1085×523×1582 1:0.46:1.46	1085×37 (개판) 1:0.03	300×265 1:0.88	115×121(2단) 1:1.05	218×55(4개) 1:0.25	218×55(4칸) 1:0.25 168×50(5칸) 1:0.30	1020×215(마대) 1:0.21	35 / 30 1:0.86
S9 크기(mm) 비례	1102×566×1685 1:0.51:1.53	1102×33 (개판) 1:0.03	315×280 1:0.89	115×123(2단) 1:1.07	220×60(4개) 1:0.27	220×60(4칸) 1:0.27 170×45(5칸) 1:0.26	1075×220(마대) 1:0.20	35 / 30 1:0.86
S10 크기(mm) 비례	1085×522×1615 1:0.48:1.49	1085×35 (개판) 1:0.03	288×265 1:0.92	120×120(2단) 1:1	210×48(4개) 1:0.23	210×48(4칸) 1:0.23 167×44(5칸) 1:0.26	1075×220(마대) 1:0.20	35 / 30 1:0.86
S11 크기(mm) 비례	1050×535×1475 1:0.51:1.40	1050×38 (개판) 1:0.04	290×275 1:0.95	120×120(2단) 1:1	없 음	210×64(4칸) 1:0.30	1000×190(플래) 1:0.19	35 / 30 1:0.86
S12 크기(mm) 비례	1060×542×1590 1:0.51:1.50	1060×39 (개판) 1:0.04	290×260 1쌍 1:0.90 170×230 2쌍 1:1.35	115×115(2단) 1:1	210×61(4개) 1:0.29	210×61(4칸) 1:0.29 164×52(5칸) 1:0.32	1025×275(마대) 1:0.27	36 / 34 1:1.06
S13 크기(mm) 비례	1090×550×1560 1:0.50:1.43	1090×35 (개판) 1:0.03	330×275 1쌍 1:0.83 205×256 2쌍 1:1.25	115×125(2단) 1:0.23	215×50(4개) 없 음	215×50(4칸) 1:0.23 170×50(5칸) 1:0.29	1070×290(마대) 1:0.27	35 / 25 1:0.71
S14 크기(mm) 비례	1055×455×1600 1:0.43:1.52	1055×30 (개판) 1:0.03	215×245 1쌍 1:1.14	130×105(2단) 1:0.81 120×195(1단) 1:1.63	180×50(4개) 1:0.28	180×40(4칸) 1:0.22 135×40(5칸) 1:0.31	990×180(마대) 1:18	50 / 35 1:0.70
평균 크기(mm) 비례	1085×533×1632 1:0.49:1.50	1085×35 (개판) 1:0.03	298×271 1쌍 1:0.91 188×243 2쌍 1:1.29	119×121(2단) 1:1.02 120×195(1단) 1:1.63	215×58(4개) 1:0.27	214×58(4칸) 1:0.27 201×51(5칸) 1:0.25	1057×244(마대) 1:0.23 1000×190(플래)	36 / 30 1:0.83

— 최소치 — 취대치 \* 문상단의 서랍은 '개'로, 머름간은 '칸'으로 표시하였음.  
\* 머름간의 최소치 취대치는 4칸, 5칸 별로 모두 표시하였음.

30mm로 그 비는 1 : 0.83을 나타낸다.

이로써 삼층장의 전체크기는 가로에서 보다 높이의 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문은 가로가 더 긴 장방형의 비례를 가지며 쥐벽간은 거의 정방형의 비례이고 서랍, 머름간의 비는 4 : 1에 가까운 비례임을 알 수 있었다.

3) 표면장식

삼층장 표면방식의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전면에 판재로 사용된 목재는 단풍나무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 목재의 목리가 드러나는 정도를 보면, 대부분 비교적 잘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에 나타난 장식기법은 음각이나 먹줄 등이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목리문을 그대로 살려 장식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마감도 목리문을 잘 나타내기 위해 투명한 옷칠로만 마감하였다.

쇠시리의 처리는 등근모가 가장 많고 마대를 장식하는 풍혈의 형태는 박쥐형이 대부분이다.

이로써 삼층장의 표면장식은 단층장이나 이층장보다 더 목리문 위주이고, 쇠시리는 등근모가, 풍혈은 박쥐형이 일반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4) 금구장식

삼층장의 금구장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

<표 12> 삼층장의 표면장식 분석표

항목 번호	목재	목리문	문양표현		칠	쇠시리	풍혈
			기법	내용			
S1	단풍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	.	옷칠 / 흑칠	등근모	박쥐형
S2	단풍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	.	옷칠	등근모	박쥐형
S3	느티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	.	옷칠	등근모	박쥐형
S4	느티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	.	옷칠 / 흑칠	등근모	박쥐형
S5	느티나무	거의 드러나 보이지 않음	.	.	옷칠 / 흑칠	등근모	박쥐형
S6	먹감나무	강하게 드러나 보임	.	.	옷칠	등근모	박쥐형
S7	단풍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음각	여의두형	옷칠 / 흑칠	괘머리모	박쥐형
S8	단풍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	.	옷칠	등근모	직선형
S9	호도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먹줄	사각형	옷칠	등근모	박쥐형
S10	단풍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먹줄	사각형	옷칠	평모	박쥐형
S11	.	치장재로 마감	.	.	주칠 / 흑칠	평모	당초형
S12	단풍나무	거의 드러나 보이지 않음	.	.	옷칠	등근모	박쥐형
S13	호도나무	비교적 드러나 보임	.	.	옷칠	등근모	박쥐형
S14	먹감나무	강하게 드러나 보임	.	.	옷칠	등근모	박쥐형

<표 13> 심층장의 금구장식 분석표

항목 번호	재료	감 잡 이					고리 및 들쇠		들쇠 받침 (갯수)	앞바탕 (갯 수)	경 첩 (갯수)	자물쇠 (갯 수)	광두정 (갯수)	금구 장식 의 총 갯수
		거 멀 감 잡 이				장식감잡이	서 랑 (갯수)	문 (갯수)						
		천판귀 감잡이 (갯수)	몸체귀 감잡이 (갯수)	허리대 감잡이 (갯수)	금 통 감잡이 (갯수)									
S1	주석	망 두 형 2	망 두 형 4	망 두 형 4	운 형 2	비 선 형 24	활형들쇠 4	등근형 고리 3	.	등근형 3	등근형 18	.	.	64
S2	주석	망두형 2	망두형 4	망 두 형 4	운 형 2	비 선 형 24	활형들쇠 4	등근형 고리 3	.	등근형 3	등근형 18	.	.	64
S3	주석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4	여의두형 4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2	비 선 형 24	박귀형 들쇠 4	등근형 고리 3	.	투각팔괘문 등근형 3	투각완자문 제비추리형 18	.	.	64
S4	주석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4	망 두 형 4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2	여의두형 24	박귀형 들쇠 4	등근형 고리 3	.	투각팔괘문 등근형 3	투각완자문 망두형 18	.	.	64
S5	주석	.	.	.	여의두형 2	.	활형들쇠 4	등근형 고리 3	.	등근형 3	등근형 2	.	.	24
S6	주석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2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4	여의두형 4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2	화 형 24	활형들쇠 4	등근형 고리 3	박귀형 4	투각완자문 화형 3	화 형 18	.	.	68
S7	주석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4	여의두형 4	여의두형 2	여의두형 24	활형들쇠 4	등근형 고리 3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4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3	투각완자문 제비추리형 18	.	.	68
S8	주석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4	망 두 형 4	운 형 2	화 형 24	박귀형 들쇠 4	등근형 고리 3	.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3	화 형 18	.	.	64
S9	주석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4	여의두형 4	여의두형 2	비 선 형 24	활형들쇠 4	등근형 고리 3	.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3	투각완자문 망 두 형 18	봉어형 자물쇠 3	.	67
S10	주석	약 과 형 2	약 과 형 4	약 과 형 4	운 형 2	약 과 형 24	활형들쇠 4	네모형 고리 2	.	약과형 3	약과형 18	선자물쇠 3	.	67
S11	백동	약 과 형 2	약 과 형 4	약 과 형 4	약 과 형 2	약 과 형 24	.	네모형 고리 3	.	약과형 3	약과형 18	.	.	60
S12	주석	망 두 형 2	망 두 형 4	망 두 형 4	운 형 2	등 근 형 32	활형들쇠 4	등근형 고리 2	.	등근형 4	등근형 12 망두형 12	은첵 자물쇠2	.	80
S13	주석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2	투각칠보문 여의두형 4	망 두 형 4	투각완자문 여의두형 2	여의두형 32	박귀형 들쇠 4	등근형 고리 2	.	투각팔괘문 등근형 2 여의두형 2	화 형 12 투각완자문 제비추리형 12	은첵 자물쇠2	.	80
S14	주석	망 두 형 2	비선형 4 망두형 2	망 두 형 4	망 두 형 2	비 선 형 20	활형들쇠 4	등근형고 리2 활형들쇠 1	박귀형 1	등근형 2	등근형 16	ㄷ자 자물쇠3	칠보형 1	65
소유가구/사 례수		13/14	13/14	13/14	14/14	13/14	13/14	14/14	1/14	14/14	14/14	5/14	1/14	
백 분 율		93%	93%	93%	100%	93%	93%	100%	7%	100%	100%	36%	7%	
평균갯수		2	4	4	2	25	4	3	2	18	18	3	1	64

다.

금구장식의 재료는 주석이 대부분이고 S11만이 백동으로 되어있다.

우선, 감잡이를 보면 S5만이 굽통감잡이만 있을뿐, 나머지 삼층장은 모두 천판귀, 문체귀 허리대, 굽통감잡이와 문귀장식 감잡이가 일괄적으로 부착되어 있고, 새발장식감잡이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감잡이에 사용된 형태는 비교적 통일성이 있는데, 특히 천판귀, 문체귀, 허리대감잡이는 강한 통일성을 보인다. 굽통감잡이는 여의두형이 가장 많고, 문귀장식감잡이는 버선형이 가장 많다. 다음, 들쇠 및 고리를 보면, 모든 서랍에는 들쇠가, 문에는 고리가 달려있다. 그러나 몸판에는 고리나 들쇠가 전혀없다. 서랍에 사용된 들쇠의 형태는 대부분활형이며, 문에 사용된 고리는 대부분 둥근형이다. S14는 반단이장이므로 예외적으로, 문에 반달돌쇠가 달려있다. 들쇠받침은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다.

앞바탕과 경첩은 그 형태가 통일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자물쇠는 단층장이나 이층장에서보다 많이 나타나는데, 그 형태가 비교적 다양하다. 광두정도 S14의 반단이장에서만 칠보형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삼층장에 사용된 금구장식 총갯수의 평균은 64개로 S5의 24개는 예외적으로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삼층장의 금구장식은 천판귀, 문체귀, 허리대, 굽통, 문귀장식등의 감잡이와 서랍들쇠, 문고리, 앞바탕, 경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며 그 형태는 여의두형, 둥근형, 버선형, 약과형, 활형, 박쥐형 등이 빈번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종합분석

앞서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 각각의 의장적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종합하여 각 의장요소별로 비교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전면구성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의 전면구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천판은 세 장류에 있어 모두 개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층장의 경우에만 2점이 두루마리 개판으로 나타났다.

문은 이층장과 삼층장에서 모두 각층 한쌍의 여단 이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층에서만 문이 없는 경우가 3점 나타났다.

문양측의 쥐벽간은 2단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층장중 1점은 1단으로 되어있고, 단층장중 4점은 쥐벽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단에는 대부분 서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삼층장은 4개인 경우가 10점 인데 비해 이층장은 4개인 경우가 6점, 5개인 경우가 2점이었으며 단층장은 4개인 경우가 6점, 3개인 경우가 4점으로 다양성을 보인다.

문하단의 머름간을 보면 삼층장은 모두 4칸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비해 이층장은 4칸이 6점, 5칸이 2점이며, 단층장은 4칸이 4점, 4칸과 5칸이 3점 등으로 다양성을 보인다.

맨 아래층의 문 최하단은 이층장과 삼층장에서만 나타나는데 삼층장은 5칸이 10점으로 거의 통일된데 비해 이층장은 5칸이 6점, 4칸이 2점으로 다양성을 보인다.

다리는 대부분 마대로 되어 있는데 삼층장은 10점, 이층장은 8점, 단층장은 10점이 마대로 되어 있다.

이로써 전면구성은 삼층장이 가장 양식화 되어있고, 다음은 이층장이며, 단층장은 비교적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크기 및 비례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의 크기 및 비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단층장 중 이불장은 크기가 유난히 작고 비례가 독특하기 때문에 종합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전체크기를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단층장에서 삼층장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가로는 단층장과 이층장의 차이가 29mm, 이층장과 삼층장의 차이가 20mm로 나타났으며, 세로는 그 차이가 각각 36mm, 35mm로 나타났고, 높이는 422mm, 287mm의 차이를 보여 그 증가의 폭이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표 14〉 전면구성 종합분석표

	(사례수)장류	(12) 단층장	(9) 이중장	(11) 삼층장
	전면구성	빈도	빈도	빈도
천 판	천 판	.	.	.
	개 판	10	9	11
	두루마리개판	2	.	.
문(두쪽 여닫이문)	각층(1쌍)	9	9	11
	없 음	3	.	.
문 양 측 (취벽간)	1 단	.	1	.
	2 단	8	8	11
	없 음	4	.	.
문 상 단 (서랍.머름간)	서랍 3개	4	.	.
	서랍 4개	6	6	10
	서랍4개+머름간3칸	1	.	.
	머름간 4칸	.	1	.
	서랍 5개	.	2	.
	없 음	1	.	1
문 하 단 (머름간)	4 칸	4	6	11
	5 칸	.	2	.
	4칸+5칸	3	1	.
	4칸+3칸	1	.	.
	3칸+4칸+5칸	1	.	.
	4칸+5칸+6칸	2	.	.
	없 음	1	.	.
문 최하단 (머름간)	4 칸	.	2	.
	5 칸	.	6	10
	없 음	.	1	1
다 리	마 대	10	8	10
	판 재	1	1	.
	플 재	1	.	1

러한 증가폭의 감소는 비례를 변화시켜, 단층장의 전면비는 10:9에 가깝고, 이중장의 전면비는 4:5에 가까우며, 삼층장은 2:3에 가까운 비례를 나타낸다.

개판의 두께는 단층장에 비해 이, 삼층장이 두꺼워 큰 키에 부합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의 크기 중, 가로는 단층장에서 삼층장으로 갈수록 38mm와 9mm가 커지나 세로는 반대로 9mm와 36mm가 적어진다. 따라서 문은 세로가 긴 장방형(1:1.25)에서 가로가 긴 장방형(1:0.90)으로 바뀐다. 이는 문이 1층에서 2층, 3층으로 증가하는 만큼 창의 높이가 2배, 3배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의

높이를 낮게 조정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문 양측의 취벽간도 마찬가지로 세로가 줄어들어 그 비가 단층장에서는 세로가 긴 5:6에 가까우나 이중장 삼층장에서는 거의 정방형에 가깝다.

문상단의 서랍이나 취벽간에 있어서도 단층장에서 삼층장으로 갈수록 세로크기가 작아져 그 비례는 점차 가로가 넓은 장방형으로 바뀐다. 즉, 문하단의 5칸의 등분된 머름간의 비례는 단층장에서 1:0.44, 이중장에서 1:0.37, 삼층장에서는 1:0.25가 된다.

그러나 마대는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층이 많아질수록 다리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

〈표 15〉 크기 및 비례 종합 분석표

항 목	크기 및 비례		단층장(8)	이층장(9)	삼층장(11)
	평균 (mm)	비례			
전 체 높 이 (가로×세로×높이)	평균 (mm)		<u>1041</u> × <u>466</u> × <u>937</u>	1070×502×1359	<u>1090</u> × <u>537</u> × <u>1646</u>
	비례		1:0.45:0.90	1:0.47:1.27	1:0.53:1.51
개 관 (가로×두께)	평균 (mm)		<u>1041</u> × <u>31</u>	1070×35	<u>1090</u> × <u>35</u>
	비례		1:0.03	1:0.03	1:0.03
두꺼여단이문 (가로×세로)	평균 (mm)		<u>257</u> × <u>319</u>	295×310	<u>304</u> × <u>274</u>
	비례		1: <u>1.25</u>	1:1.05	1:0.90
문양축(취벽간) (가로×세로)	평균 (mm)		131× <u>146</u> (2단)	132×280(1단) <u>139</u> ×138(2단)	<u>119</u> × <u>122</u> (2단)
	비례		1:1.11	1:2.12 1:0.99	1:1.03
문상단(서랍,머름간) (가로×세로)	평균 (mm)		242×53(3개) <u>198</u> × <u>65</u> (4개)	211×63(4개) 170×70(5개)	<u>218</u> × <u>59</u> (4개)
	비례		1:0.22 1:0.33	1:0.30 1:0.41	1:0.27
문하단(머름간) (가로×세로)	평균 (mm)		267×71(3칸) <u>197</u> × <u>74</u> (4칸) <u>139</u> ×61(5칸)	215×64(4칸) 168× <u>62</u> (5칸)	<u>218</u> × <u>59</u> (4개) <u>207</u> ×51(5칸)
	비례		1:0.27 1:0.37 1:0.44	1:0.30 1:0.37	1:0.27 1:0.25
다 리 (가로×세로)	평균 (mm)		<u>993</u> × <u>214</u> (마대) 840×55(측판)	1034×228(마대) 940×130(측판)	<u>1073</u> × <u>243</u> (마대) 1000×190(골재)
	비례		1:0.21 1:0.07	1:0.22 1:0.14	1:0.23 1:0.19
골재기둥 / 동자	평균 (mm)		33 / <u>28</u>	<u>31</u> / <u>28</u>	<u>36</u> / <u>30</u>
	비례		1:0.86	1:0.90	1:0.83

— 최소치 — 최대치 \* 문상단의 서랍은 '개'로, 머름간은 '칸'으로 표시하였음.

\* 머름간의 최소치 최대치는 4칸, 5칸 별로 모두 표시하였음.

서 마대너비와 다리높이와의 비례는 단층장이 1:0.21, 이층장이 1:0.22, 삼층장이 1:0.23으로 거의 일정한 비례를 유지하고 있다.

팔재기둥이나 동자의 굵기는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에 따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3) 표면장식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의 표면장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단층장, 이층장에는 느티나무 판재가 많이 쓰였고, 삼층장에서는 단풍나무가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단층장은 이, 삼층장에 비해 다양한 목재가 고루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리문의 드러나는 정도를 보면, 이, 삼층장은 목리문을 주요 장식요소로 활용한 반면, 단층장은 그 이외에 다른 장식기법을 활용했음을 짐작케 한다. 즉, 이, 삼층장에서 목리문이 비교적 잘 드러나보이는 경우가 8개와 9개인데 비해 단층장은 5개이다.

옷칠로만 마감한 경우는 단층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칠, 흑칠로 장식한 경우는 단층장이 2점, 이, 삼층장은 3점씩으로 유사하다. 쇠시리의 형태는 단층장에서 가장 다양한데, 둥근모는 모든 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풍혈의 형태는 이, 삼층장에서는 박쥐형이 많고 단층장에서는 직선형이 더 많다. 이는 장식성이 높은 단층장에서 다리를 간결하게 처리하고자 한 의미로 해석된다.

항 목

<표 16> 표면장식 종합분석표

항 목	(사례수)장류	(12) 단층장	(9) 이층장	(11) 삼층장
	전면구성	빈 도	빈 도	빈 도
목 재	느 티 나 무	5	4	3
	먹 감 나 무	2	3	1
	물 푸 레 나 무	1	.	.
	은 행 나 무	1	.	.
	피 나 무	1	.	.
	화 류 나 무	1	.	.
	단 풍 나 무	.	2	5
	대 나 무	1	.	.
	기 타 *	.	.	1
목 리 문	강하게 드러나 보인다	2	4	1
	비교적 드러나 보인다	3	4	8
	거의 드러나 보이지 않음	4	1	1
	치장재로 마감되었다	3	.	1
칠	옷 칠	10	6	8
	옷칠/흑칠	1	1	2
	주칠/흑칠	1	.	1
	옷칠/주칠/흑칠	.	2	.
쇠 시 리	둥 근 모	8	5	8
	배 미 리 모	1	1	.
	골 미 리 모	1	3	1
	평 모	1	.	2
	실 오 리 모	1	.	.
풍 혈	박 쥐 형	5	9	9
	직 선 형	7	.	1
	당 초 형	.	.	1

\* 전체가 치장재로 마감되어 목재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4) 금구장식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의 금구장식을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금구장식 중 그 부착빈도가 비교적 높은 장식을 살펴보면, 단층장에는 문귀장식 감잡이, 서랍들쇠, 앞바탕, 경첩이 포함되고, 이층장에는 개판귀, 몸체귀, 굽통, 문귀장식등의 감잡이와 서랍고리, 문고리, 앞바탕, 경첩등이 포함되며, 삼층장은 이층장과 같으면서 허리대 감잡이가 더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즉, 양식화된 기본 금구장식의 종류는 단층장이 가장 단순하고 삼층장은 가장 복잡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금구장식 총갯수의 평균도 단층장은 29개, 이층장은 56개, 삼층장은 64개로 단층장이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에 사용된 금구장식을 그 문양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감잡이 중 거벌감잡이류에 많이 사용된 문양은 약과형, 여의두형, 망두형이고, 장식 감잡이에 많이 사용된 문양은 여의두형, 버선형, 화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 및 들쇠에서는 활형, 등근형, 박쥐형이 많이 사용되었고 앞바탕과 경첩에서는 약과형과 등근형이 많이 사용되었다. 들쇠 받침에서는 여의두형과

박쥐형이 많이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볼때,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금구장식의 문양은 여의두형이고 다음은 등근형, 망두형, 약과형, 활형, 박쥐형, 화형, 버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양의 사용은 각 장의 종류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V. 결 론

가구는 시각적 대상물로서 여러구성요소가 모여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각 요소의 특징과 또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나 특성을 지니게 된다. 조선시대의 가구도 하나하나의 특징은 다르지만 전체적 이미지를 갖게 하는 요인이 있고, 이 요인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나에 따라 각각을 다르게 느끼게 하는 특성을 갖게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가구중 안방에서 사용되었던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을 중심으로 그 의장요소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각 가구의 종류별 일반적 특성과 개별적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조선시대 가구가 지닌 의장요소로는 선행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빈번히 다룬 전면구성, 크기 및 비례, 표

<표 17> 금구장식의 종류별 종합분석표

분 류		(사례수)장류	(12) 단층장	(9) 이층장	(11) 삼층장
		금구장식	빈 도	빈 도	빈 도
감 잡 이	거벌 감잡이	개판귀감잡이	8	9	10
		몸체귀감잡이	8	9	10
		허리대감잡이	1	6	10
		굽통감잡이	6	9	11
	장식 감잡이	문귀장식감잡이	9	9	10
		새발장식감잡이	2	3	.
고리 및 들쇠	서 랑	11	8	10	
	문	4	9	11	
	몸 판	1	.	.	
앞 바 탕		9	9	11	
경 첩		9	9	11	
자 물 쇠		1	1	4	
들쇠받침		2	2	2	
총갯수 평균		29	56	64	

〈표 18〉 금구장식의 문양별 종합분석표

장식의 종류	감						잡				이				앞바탕				경첩		자물쇠		광두정		돌쇠받침		장 별 합 계														
	거 멸 감 잡 이			장 식 감 잡 이			개 판 구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문 판	모 판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개 판 구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삼 단 이
금구 장식분양	3	2	2	2	2	1	2	1	1	2					2	2	2	1	2									11	1	12	24										
악과형	2	6	3	6	7	5	4	2	6	7	2	1	3	1						2	2	4						4	1	11	29	32	72								
여의두형														1						1							7	5	10	22											
활형															1	1											7	16	25	48											
동근형																	2	7	12								1		4	5											
네모형																	2	1	2								2		3	6	11										
버선형	1		1											1	3	5											2		5	5	15										
박귀형																	2	1	3								2		4	2	16										
화형	1		2														3										11	2	3	16											
친도형																											1		1	2											
망두형	2	2	1	2	4	2	6	1	2	6	1	2														3	6	16	25												
두루마리형																											2		2												
돌찌귀경첩																											1		1	2											
불로형																											2		2	4											
보상화형																											2	1	1	3											
재비추리형																											1	1	1	2											
은형																											3		3	5	8										
국수형																											1		1	1											
석류형																											1		1	1											
T자화형																											1		1	1											
은형자물쇠																											1	1	2	3											
N자여의두형																													2	2											
D자형														1															1	1											
원관형																													1	1											
선자물쇠																													1	1											
연봉형																													1	1											
쌍고리																													1	1											
수팔련형																													2	2											
장경첩																													1	1											
문어형																													1	1											
칠보형																													1	1											

면장식, 금구장식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연구의 전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의 전면구성을 보면, 개판, 두짝 여닫이문, 서랍, 쥐벽간, 머름간, 마대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는데, 구성상 그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은 주로 서랍과 머름간의 갯수, 칸수, 단수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전면구성상의 다양성은 이·삼층장보다 단층장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삼층장의 기능은 의류 수납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단층장의 기능은 다목적적이고 특히 머리맡에 두고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보다 개성적인 다양한 표현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2)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의 크기는 층수가 많아질수록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커졌는데 그 비율이 일정하거나 어떠한 규칙성을 지닌 것은 아니었지만 각각에 있어 보기 좋은 비례가 되도록 하기 위해 각 부위에 크기를 조절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서랍, 문, 쥐벽간, 머름간등의 세로치수를 보면, 층수가 많아질수록 그 길이는 오히려 짧아진다. 따라서 전체적인 윤곽비는 단층장에서 삼층장으로 갈수록 1:0.90, 1:1.27, 1:51로 세로가 긴 장방형의 비례를 보이지만, 세부적인 서랍, 문, 쥐벽간, 머름간의 비는 이와 반대로 점차 가로 긴 장방형의 비례를 나타낸다. 세부항목에서 자주 나타나는 비는 1:1, 4:5, 1:3, 1:4, 1:5 등에 가까운 비례였다.

3)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간의 표면장식은 그다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면을 음각, 양각등으로 조각하거나 주철, 흑칠등으로 처리한 경우는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은 투명한 옷칠로만 마감하여 자연적인 나뭇결을 있는 그대로 살려 한국 전통가구에 있어 목리가 차지하는 장식요소로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에 나타난 금구장식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된 금구장식의 종류는 단층장이 가장 적고, 다음은 이층장, 삼층장의 순이었다. 그러나 사용된 문양의 종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때 여의두형, 둥근형, 약파형, 망두형, 활형, 박쥐형, 화형이 금구장식에 사용된 주요 문양임을 알 수 있었다.

5) 단층장, 이층장, 삼층장의 의장특성을 종합적으로 보면, 단층장은 모든 의장요소에서 그 다양성의 폭이 넓은데 비해 이, 삼층장은 상당히 양식화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광계정. 조선왕조 목공예에 나타난 장식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0.
- 2) 광영숙. 전통 자물쇠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3) 권봉희. 조선가구의 짜임새 구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4) 권영기. 조선시대 장 짜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5) 김광열. 조선조 목가구의 풍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6) 김도중. 조선조 가구의 금속장식에 관한 연구—재료와 형태에 관한 제작 기법을 중심으로—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7) 김미화. 조선왕조 목공가구에 나타난 문양 연구—가구의 조각문을 중심으로—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8) 김원용. 전통문화의 형성과 보존. 탐구당. 1976.
- 9) 김종학. 화백수집. 조선조 목공예. 국립중앙 박물관. 1989.
- 10) 김현숙. 이조후기 탁자류의 의장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 11) 박영규. 한국의 목가구. 삼성 출판사. 1982.
- 12) 배만실. 조선후기 목공가구에 나타난 장식문양의 의장적 분석, 이화여자 대학교 논문집, 1977, pp.105-167.
- 13) 배만실. 이조 목공가구의 미. 서울 진성문화사. 1980.
- 14) 배만실.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 15) 배연희. 조선조 여성용 목공가구에 관한 연구—장, 농, 반다지를 중심으로—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16) 백성도. 조선조 말기 가구류의 금속장식문양에

- 관한 연구 —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17) 신민. 조선가구에 부착된 금속장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18) 여영. 조선조 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19) 오구환. 조선조 사랑방 가구에 나타난 비례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20) 윤근. 조선왕조 시대의 반닫이에 관한 연구 — 금속장식문양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21) 이성배. 이조가구의 금속장식 연구 — 장식 무늬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22) 이순희. 한국과 중국의 전통가구 양식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23) 이은희. 장식가구의 형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 — 조선조와 현대의 짜임새 비교를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24) 이종석.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1986.
- 25) 이풍미. 이조 목공예의 기능과 형태미 — 장, 농에 대하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26) 이혜주. 조선시대 가구류 장식 문양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27) 조선시대 가구장식 문양집. 태정민속박물관. 1986.
- 28) 주남철. 한국 주택 건축, 서울, 일지사. 1980
- 29) 최순우, 박영규. 한국의 목칠 가구, 강미 출판사. 1981.
- 30) 허영란. 이조시대 내실가구의 특징적 성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31) 홍은자. 이조 목가구에 관한 조사연구 — 장식 문양을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32) Edward Reynolds Wright, Man Sill Pai, *Korean Furniture*, Kodansha International Ltd. 1984.
- 33) Michael Wickman, *Korean Chests — Treasures of the Yi — Dynasty*, Seoul International Publishing House. 1978.